

한농연 발전방안

이 자료는 지난 8월8일 전국대회의 학술토론 자료로 작성된 것입니다. 서론, 현황 등의 앞부분은 생략하고, 핵심부분을 요약·보충하여 여기에 다시 실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농연이 직면한 도전과 극복과제

지금은 한농연 조직에게는 물론 우리 농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시기의 부실농정으로 농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데, 개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농업은 살아남아야 하며, 우리 농민들은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생업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한농연은 국내 최대 농민단체로서 체계적으로 정비된 조직을 통한 강력한 농권운동 역량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한농연 회원들은 지역농업의 생산 부문에서는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 역량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농정 추진형태가 협치농정 형태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한농연은 비판적이고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한편, 한농연 조직은 커다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농연 회원들 간의 결집력이 약화되고, 품목

간, 계층 간, 임원과 일반 회원 간 갈등을 빚기도 한다. 특히, 젊은 농업후계인력의 유입 자체가 갈수록 적어지고, 창업후계농의 한농연 조직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기존 한농연 회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농권운동 역량이 취약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농연은 급변하는 국내외 농정여건 아래에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민을 위한 농정을 실현하고, 한편, 농민 스스로의 자생력과 시장대응력을 높이는 노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대표성과 책임성을 지닌, 명실상부한 한국농민의 대표조직이 되어야 한다.

한농연의 발전방향

- 품목·지역·조직 내 위치를 초월하여 회원 간의 내부 결속력이 강해야 함.
- 조직의 목표가 뚜렷하고, 회원들이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충만해야 함.

- 기존의 간부 및 일선 회원은 물론 신규회원과 원로회원들도 적극 참여해야 함.
- 회원들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농업과 조직의 내·외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조직력과 리더십을 갖추어야 함.
 - 농업과 조직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의 급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너지고 있는 일선조직'을 재구축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함.
 -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 다른 농민단체와 연합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농업·농촌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농민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함.
 -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의 보전,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등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이끌어내야 함.

조직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예시)

21세기 우리 농업의 희망인 한농연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몇 주요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창업후계농의 한농연 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신규 농업인력은 물론 창업후계농과 신규후계농을 합친 전체 후계농업경영인의 수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및 농가소득 감소로 농업인력 공동화 및 급속한 경쟁력 저하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높음
- 창업후계농과 한농연의 일체감 부족으로 농업·농촌 주도세력이 약화되고 있음.
 - 한농연 정관상 창업후계농은 회원 가입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창업후계농이 한농연 조직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음. 다만, 경기도연합회는 창업후계농 대상 교육 프로그램(1박 2일)을 자체 시행중이며, 비교적 결합도가 높은 편임
 - 한농연 활동에 이미 참여해 온 창업후계농도 40대 이상의 회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재의 한농연 조직에 '일체감을 못 느낀다' 하고, 기존 한농연회원은 '세대 차를 느낀다'며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농권 주도세력의 필요성, 농권운동의 발전 방향 및 한농연의 비전 등에 대한 창업후계농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연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81~99	2000	2001	2002	2003	2004
육성인원	123,329	109,850	4,674	3,270	2,500	1,910	1,125

- 현재 농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농연 조직이 약화됨에 따라 농권운동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됨

(2) 개선 방안

- 한농연 주관의 창업후계농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
 - 교육 프로그램은 시도연합회가 주관하고, 중앙연합회 및 농업정책연구소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일체감 형성, 농권주도 세력을 강화
- 한농연 조직에 청년부문 조직을 설립하여, 청년회의사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체계 개편 등을 추진.

2. 한농연 품목별 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한농연 농권운동과 조직 운영 방식이 쌀 개방, FTA, 부채문제 등 정치성이 강한 대형 이슈에 집중되고, 품목·지역 간 갈등 등 작지만 해당 농민과 회원에게는 중요한 이슈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함에 따라 이들 농가들은 농권운동에서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음.
 - 농업진흥지역 내에 축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종농가가 반대하고, 쌀 개방반대를 위한 집회에는 축산농가가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
- 늘어나는 수입농산물과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 농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시장대응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나, 이를 주도해 나갈 농민자율조직이 없음.

- 지역조합 단위, 시군단위 연합판매로는 지역 간의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수입농산물과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응할 수 없음.
- 전국적인 조직과 '후계자' 라는 동지의식이 있는 한농연이 주도할 수밖에 없음.

(2) 개선 방안

- 각급 연합회에도 품목별 내지 부류별 위원회를 두어 품목별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회원들의 관심사항을 균형 잡히게 수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이해관계와 관심사항이 일치하는 품목별 회원들의 모임과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조직의 활성화를 도모.
- 한농연이 중심이 되어 주산지별로 '시장대응력이 있는' 판매전문조합 내지 회사가 설립되도록 하고, 나아가 품목별 전국연합이 주산지 간 경쟁이 아니라, 협동하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조정.
- 한농연 공식 조직, 즉,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에 품목·축종별 대표가 적정비율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
 - 다만, 품목별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별도의 회비를 더 내도록 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직 강화에 기여하게 함.

3. 시도·시군구 연합회 운영활성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연합회는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하여 필요한 전문요원의 확보 및 농권운동의 전개에도 제

약을 받고 있음.

- 조직운영비를 스스로 조달하지 않고, 지자체 또는 농협 등 외부에 의존함에 따라 전문적이고도 당당한 농권운동을 전개하기 어려움.

○ 임원진과 일선회원, 회원과 회원 간의 신뢰와 결합력 부족으로 전체적인 또는 지역 내 농정현안의 해결을 위한 회원 동원력도 부족.

- “막강한” 조직력을 두고도 기초의원 한 사람 당선시키지 못하는 연합회가 있는가 하면, 소수 임원들에게 경제적, 업무적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임원에 선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

(2) 개선 방안

○ 지역 내 회원들 간의 교류와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 이해관계와 관심사항이 일치하는 회원들 간의 모임과 교육, 견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직·간접 지원을 강화.

- 각급 연합회의 조직 및 의사결정기구 내에 품목 및 주요 이슈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들의 관심사항에 적극 대처하는 노력을 강화. 다만, 품목 및 주요 이슈별 회원들은 별도의 회비를 내면서 활동하도록 함.

○ 농어민신문과 방송에 지역 면 또는 지역시간을 두어 지역의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지역연합회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밀착도를 높임.

- 지역담당 기사를 보충하고, 지역광고도 수주하여 자체수지를 맞추도록 함.(참조: 프랑스 농업경영

지총연맹의 지역 뉴스 및 광고 수주 방식)

○ 지역 내 회원과 일반농민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익사업’ 수행.

- 공동방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인력은행 운영 등

[시군구 연합회의 ‘수익사업’ 모범사례]

- 고양시·김포시연합회 : 학교급식용 쌀 공급 사업
- 청원군연합회 : 오창농협과 공조, 친환경유기농작목회 운영
- 연기군연합회 : 쌀 저온저장창고 운영, 고품질 저온쌀 판매
- 나주시연합회 : 소출력 공동체 FM라디오 방송 참여 (나주방송)
- 구미시연합회 : 정맥(精麥)공장, 친환경효소공장 운영

4. 한농연 조직의 외연 확대 및 내부 개편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새로운 영농후계인력의 한농연 유입은 줄어들고, 기존 후계인력은 고령화되거나 일부 탈락함에 따라 조직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음.

- 영농후계사업의 명칭변경, 세대 간 격차의 확대 등으로 미래의 한농연 조직은 물론 우리 농업을 책임져야 할 젊은 농업인력들이 한농연 조직에의 참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중앙 및 각 지역 전직 회장단 등 한농연 조직 내 원로 회원들이 한농연에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섭섭해 하는 경우도 발생.

○ 한농연 회원에 가입하여 농권운동 및 조직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하는 농민들도 다수 있지만, 이를 회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 특히 연령초과로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없어, 나이가 적은 부인의 명의로 자금을 받고 실제 한농연 조직 활동은 부부 동반으로 하거나, 남성 농민이 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농권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과거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받은 사람과는 조직활동을 하고, 현재 '뜻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농업 생산과 농권운동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한농연 회원 및 조직의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일반 농민들에게도 개방된 회원·조직 운영 체제의 도입 여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 회장단의 잦은 교체, 사무국요원들의 이직 등으로 지도부의 안정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회원들의 기대와 한농연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개선 방안

- 한농연의 이념과 비전에 동의하는 일반 농민들을 한농연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의 자격과 절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이 문제는 한농연의 정관 개정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역 및 중앙연합회 차원의 토론을 통하여 신중히 검증하고 접근.
 - 당장의 문호개방이 어려울 경우, 한농연 농권운동·교육 훈련·각종 사업에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 한농연 회원들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세대 내 회원

들의 결합력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 전체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청년회 : 35세 미만 회원, 이사회와 집행부 구성에 적정 비율을 반영함
- 장년회 : 35~60세 미만 회원, 한농연 전체 조직의 회장은 장년회원 중에서 선출함
- 원로회 : 60세 이상 회원 및 전임 회장단, 이사회와 집행부 구성에 적정 비율을 반영함
- 한농연 전체 조직은 장년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청년 회원과 원로 회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각의 대표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회장단의 임기와 역할분담,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 방식을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에 맞춰 개편
 - 회장단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단임 또는 중임으로 하는 방안
 - 부회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위원회제' 도입 검토
 - 중앙· 시도연합회간 정책·사업 워크샵(혹은 협의회)을 정례화(연간 2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청년·장년·원로회원 및 '비후계농' 회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칭) '농업경영인헌장' 및 행동강령을 새로 제정, 조직의 발전방향을 제시

5. '진정한' 농민대표 선출을 위한 한농연의 역할 강화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한농연 회원과 조직은 농촌지역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하면서도 농촌지역에서 선출되는 조합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농정에 관심이 적은 후보나, 농정 역량이 부족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거나, 반면에 유능한 '농업 후보' 간에 지나친 경쟁으로 그렇지 못한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기고 사후에 불평·불만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함.
- 당선된 회원과 회원 간, 당선된 회원과 지역 및 중앙연합회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의 부족으로 한농연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개선 방안

- 각급 한농연이 유망 경쟁 후보를 초청, 상호토론회 회원 질문 등을 통해 후보들의 농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후보들의 농정관과 역량을 검증함으로써 농정에 애정이 많고, 유능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
 -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은 지지하지 않은 경쟁 후보가 당선됨에 따른 역풍을 고려하여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함
- 특히, 회원 간의 경쟁으로 문제가 예상될 경우, 철저한 검증과 내부 설득을 통해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되도록 한농연이 최대한 영향력을 발휘
 - 내부 경선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특별 규범' 마련해서라도 회원 간의 경쟁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 한농연이 조합장·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진출 회원 및 그 후보자를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 선진지 견학을 통한 정책개발능력을 향상, 서로 간의 노하우 공유, 상호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



학술토론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사항

- 한농전 동창회장 등 임원들이 다수 참여하여 한농연과 한농전이 함께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몇 가지 건의사항을 얘기했음.
 - 한농전의 학교행사 또는 지역의 동창회행사에 한농연 중앙 및 지역대표가 참석하는 등 보다 잦은 교류와 대화 요망.
 - 젊은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운영체제의 도입 요망.
 - 한농전 졸업생도 배우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고충 토로.
 - ➡ 단기적으로는 한농연 등이 보다 적극적인 소개 사업을 전개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농민의 이미지를 새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 한농연 발전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한여농도 반드시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여농의 요청이 있었음.
- 한농연의 외연확대를 위해 한농연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일반

농민, 즉, “후계농자금을 받지 않은” 일반농민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음.

➡ 배우자가 한농연(여성)회원인 농민 등 자격요건을 정하고, 지역에서의 심의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할 경우,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임.

나가며

우리 농업을 위기에서 구하고, 희망의 길로 나아가게 할 자가 누구인가? 한농연이 아니고 이 과업을 수행할 자가 누구인가? 정부도, 정치인도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보아왔지 않은가?

‘답답한 사람이 샘 팔 수밖에 없다.’ 이제 한농연은 작은 이익과 명분에서 벗어나 전체 회원이 단단하게 뭉치고, 뜻을 같이하는 농민과 함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한다. 그리하여 위기의 우리 농업을 한농연이 책임지고 희망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한다!

모든 회원, 특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회원은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국내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열정을 지녀야 하며, 청년회원으로부터 원로회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운영체제를 정비하여 강력한 농권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회원들 간의 결집력과 대안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품목별 활동을 강화하고, 한편으로 우리 농업 전체의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지역 및 품목을 총괄하는 종합조정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한농연과 창업후계농이 한마음으로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농촌 현장에 유능한 후계농업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의 회생과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농권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농연 회원들은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단체장, 농축협조합장·이감사·대의원의 선출직에의 진출을 두고 회원들 간에 경쟁과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간부회원들이 한농연을 출세의 디딤돌로 이용한다는 일반회원들의 비난은 물론, 조직결속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농연 조직과 지역 농민의 관점에서 농업발전·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표성과 책임성을 지닌 리더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회원들의 의식 개혁과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어 ‘국민이 지키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업문제에 관한 제 의견은 제 블로그(<http://blog.joins.com/leehm8>)에 실려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pcc01@hanmail.net입니다.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